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피프라 땅그랑 코레아 여섯번째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열려



조코위 대통령, 노동절 앞두고 한인기업 찾아 노동자들과 식사



▲ 30일 인도네시아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를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이 직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0일 현지 한인 기업을 찾아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다. 30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잡)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낮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를 방문했다. 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달 17일 대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의 산업현장 방문은 이번이 첫 사례다. 조코위 대통령은 환호하며 반기는 근로자 1만5천여명

에 둘러싸여 나이키 신발 등을 만드는 생산라인을 견학한 뒤 함께 식사했다. 일부 근로자는 조코위 대통령의 알루미늄 식판에 자신들과 동일한 음식이 담기는 것을 보고 “구내식당 밥이라 그렇게 좋지 않다”며 난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그대로 식사를 하고 “맛있었다. 뽕빼(콩을 발효시킨 음식)와 계란, 야채가 들어 있어서 몸에도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작업 시간과 임금 수준 등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서 “15년이나 20년, 심지어 23년씩 근속한 직원들도 있



▲ 30일 인도네시아 반뜰주(州) 땅그랑 소재 한인기업 KMK글로벌스포츠를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오른쪽)이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왼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의 한 한인 업체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야반도주한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조 지시에 힘입어 해결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서부자바 주의 봉제 업체 SKB는 작년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하다 12월께 조업이 완전히 중단됐고, 대표이사 A씨는 같은 해 10월 잠적해 현재는 한국에 있다. 이로 인해 3천명이 넘는 이 회사 직원들은 줄지에 생계수단을 잃었고, 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적극적 공

조를 지시했다. 결국 A씨는 이달 9일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약 80억 루피아(약 6억5천만원)를 송금했다. 이 돈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 일각에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 사건에 적용될 모범적 해결 모델이 될 것이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은 “노사 상생 등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모범사례로 언급됐던 까닭에 조코위 대통령이 방문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의 이미지가 더욱 제고되고 양국 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부 자바 주 3개 지역, 부문별 최저임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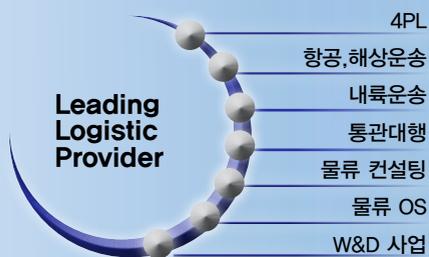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 정부가 뿌르와까르따(Purwakarta)군, 짜안주르(Cianjur)군, 수까부미(Sukabumi)시의 부문별 지역최저임금(UMK, Upah Minimum Kota)을 결정한 것이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발생한 차액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뿌르와까르따군의 지역최저임금은 주지사령 ‘2019년 제561/258호’로 설정했다. 짜안주르군의 대상 업종은 지

난해 2개 업종에서 1개 업종(외국계 음료 업체)으로 감소했다. 월 최저 임금은 332만 루피아로 전년 대비 11% 인상됐다. 수까부미시는 대규모 상업·소매를 위한 269만 3,208루피아로 설정했다. 서부 자바 주 노동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카시와 까라왕에 대해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을 책정하겠지만 22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CTR) 주최 여섯 번째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열어

지난 1일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회장:유충하)에서 땅그랑 찌뜨라소재 따만라야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푸아사 일정이 겹쳐 1일 열게 되었다.

이날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행사에는 주 대한민국 대사관 김종민 총영사를 비롯해 땅그랑반튼 한인회 채만용회장, 땅그랑반튼 한인회 하연수 2대회장, 오세명 3대 회장, 땅그랑반튼 한인회 수석부회장 및 총무단과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 유충하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으로 성장해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한 큰 일들을 해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김종민 총영사는 이런 뜻



▲한식체험에 불고기요리를 하고 있는 채만용 땅그랑반튼 한인회장



▲인우회 후원 SMK N 1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깊은 자리를 만들어 우리 동포애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사를 꾸준히 이어 열어준데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채만용 땅그랑반튼 한인회장은 몇 년간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

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행사 공연을 위해 인우회에서 한글교육을 위해 후원하는 SMK NEGERI 1 학생 30여명의 후원으로 우리

전통춤인 부채춤, K-POP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이어나갔으며 외식협회에서 한식체험 지원으로 불고기, 김치전 만들기 등을 실시해 한국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맛 볼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태극기 그리기는 한번도 가본적 없는 한국이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태극기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자료를 찾아가며 그리는 모습과 태권도 시범등은 참가했던 우리 동포의 가슴을 뭉클하게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 유충하 회장

만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파크랜드와 대사관, 땅그랑반튼 한인회, 외식협회, 인우회, 무궁화유동등 많은 분들이 후원해 5월 풍성한 가정의 달을 느끼게했다.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는 이번 여섯 번째 행사를 맞이해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체험하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행사와 문화가 우리동포사회에 작은 밑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의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의 행사는 향후 꾸준히 이어져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국의 얼을 들불처럼 확산되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신남방 수출 확대 속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남방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30일 서울에서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통상장관 간에 5년 만의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8차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

심 영역인 상품·서비스·원산지·협력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괄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후 양국 관심사를 더 깊이 논의하고자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은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사흘간 진행되는 8차 협상에

서 한국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 측은 이만 팜바기오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협상 대표단은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협력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최근 산업·에너지 분야의 화두에 대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아세안의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주력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협상과 별도로 양국 기업들의 실질적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동시



▲ 2018년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양국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치고 있다.

개최한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양국 수석대표 주재로 산업연구원, 코트라, 양국 기업들이 모여 그간의 교역·투자·협력 성과 및 향후 경제협력 방향 등을 논의한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조코위 대통령, 임금 시행령 개정 언급... 노조 · 산업계 동참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를 개정할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노동 조합과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임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13일 현지 매체 끈판이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단체(OPSI)의 펄불 시르가르 전 사무국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노동법 '2003년 제13호'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인상률 결정 메커니즘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에서 규정한 '임금 위원회가 매년 인상폭에 대해

협의한 후 지자체에 제안한다'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pindo의 신따 부회장도 시행령의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심사 청구가 지금까지 12건이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따 부회장은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국 일률인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부 자바 주 반둥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집회에서 "임금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연설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 조합을 초빙하여 개정 작업을 위한 조직을 결성할 생각을 밝혔다.

인니 산업부, 자바 외 18개 산업단지 연내 가동 목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최근 자바 섬 밖에 있는 18개소의 산업단지를 연내에 가동해 총 250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90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아찌 주 로욱세우마웨(Lhoukseumawe), 북부 수마트라 주 꾸알라 판중(Kuala Tanjung), 동부 깔리만판 주 말로이

(Maloy), 북부 깔리만판 주 따나 꾸닝(Kuala Tanjung) 등 18개소다.

목표로 하는 투자 총액에는 상하수도나 발전 설비의 정비 등 산업 단지의 인프라 개발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자원부 산업 지역 개발국의 이그나티우스씨에 따르면, 모두 3분기(7~9월)에 가동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전국 10개소의 산업 단지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정부는 대통령령 '2017년 제58호'에 따라 23개소의 산업 단지를 국

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있다.

리뽐 짜까랑, 라이츠 이슈로 2억 달러 자금조달... 메이까르따 사업에 일부 투입



인도네시아의 복합 기업 리뽐 그룹(Lippo Group) 산하의 부동산 개발회사 리뽐 짜까랑(PT Lippo Cikarang)은 18일 이날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2억 달러 규모의 라이츠 이슈(신주 예약권 무상 할당)에 따른 증자를 실시하는 건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달 자금은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서부 자바 짜까랑의 대형도시개발사업 '메이까르따(Meikarta)'에도 일부 투자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이츠 이슈는 금융감독청(OJK)의 승인을 얻어 3분기(7~9월)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메이까르따 사업을 둘러싸고 리뽐 그룹의 빌리 신도로 전 이사가 메이까르따 사업의 건설 허가 발급에 편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브카시 군수 등에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져, 재판부는 뇌물죄로 금고 3

년 6개월에 벌금 1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 끈판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뽐 짜까랑의 시몬 수비안또 대표이사는 메이까르따 사업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며 "제1기 공사에 28동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의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조 2,100억 루피아, 순이익은 6배인 2조 2,210억 루피아였다.

기업은행, 외국인전용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인니어 등 12개 언어 지원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글로벌 모바일 홈페이지'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12개 언어로 기업은행의 외국인 전용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좌이체, 모바일뱅킹 사용방법 등을 영상과 이

미지로 보여준다.

한국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금융감독원, 다누리 등과 제휴해 음식점, 병원, 관광지 등의 생활정보와 은행·보험 이용방법 등 금융정보가 담긴 e북

과 VOD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네이버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와 연계해 파파고 앱 내에 'IBK기업은행 회화' 코너를 신설했다.

계좌 개설, 외화 환전, ATM 이용 등 상황별 예문을 담아 이용자들이 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인니 대선 · 총선 후 선거관리원 272명 순직... 과로가 주원인



지난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총선 · 대선 이후 270여명의 선거관리 직원이 순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의 대변인 아리프 뿌리요 수산또는 28일 “지난 27일 밤까지 선거관리 관련 직원 272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인 대부분은 과로와 연관된 질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이밖에 1천 878명이 질병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권자 1억9천300만명의 80% 이상이 참여한 이번 선거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투표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총 ·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 날에 치러졌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노출됐다. 선거에서는 전국에 80여만개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투표 결과는 수작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현지 투표관리원은 투표 시작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표소를 떠나지 못하며,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야권 대선후보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

(그린드라당) 총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의 작업량을 관리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은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과 집권당 연합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표본개표 결과 조꼬위 대통령은 54.5%를 득표해 프라보워 총재를 9%포인트 이상 앞섰다. 투쟁민주당(PDI-P)을 필두로 한 여당 연합도 54.1%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권은 표본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면 실제 투표 결과에선 자신들이 앞선다고 주장한다.

선거 당국은 내달 22일까지 총 ·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메가프로젝트 승인... 상수도 우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총 571조 루피아(미화 403억5천만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10개년 인프라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깨끗한 물과 대중교통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12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노그로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장관은 자카르타개발계획포럼 정기회의에서 교통, 공공주택, 상수도, 위생시설, 홍수조절 등 총 9건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후 이와 같이 말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교통 부문은 총 315조 루피아를 투자해서 △도시철도인 MRT 네트워크를 현재 15.7킬로미터에서 223킬로미터로 확장 △경전철 LRT 네트워크는 현재 5.7킬로미터에서 116킬로미터로 연장 △버스웨이를 운영하는 트란스자카르타버스 네트워크는 2,149킬로미터로 연장 △통근열차선로에 고가철도 27킬로미터를 건설 △마을버스인 소형버스 양곳을 2만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공주택 부문에 90조 루피아 △상수도망 건설에 27조 루피아 △하수도망 건설에 69조 루피아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홍수조

No	Project	Budget (in trillion rupiah)	Sector	PPP potential
1	MRT network development 223 km	214	Transportation	Yes
2	LRT network development 116 km	60	Transportation	Yes
3	Transjakarta extended route 2,149 km	10	Transportation	Yes
4	Elevated loopline railway network development 27 km	27	Transportation	Yes
5	Housing provision up to 600,000 homes (financing scheme 30 percent)	90	Public housing	Yes
6	Clean water supply coverage 100 percent	27	Drinking water	Yes
7	Wastewater treatment coverage up to 81 percent	60	Wastewater treatment	Yes
8	Public minivan (angkot) revitalization up to 20,000 vehicles	4	Transportation	No
9	Flood mitigation and addition of raw water supply	70	Natural resources	Yes
Total		571		

Source: Jakarta administration and Bappenas



절운하와 원수공급망 건설 프로젝트에 70조 루피아를 배정했다.

밤방 장관은 자카르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개발기획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카르타 주민 중 상수도 이용자는 63.85%로 전국 평균인 61.29%보다 많다.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자카르타 시민은 90.73%로 전국 평균

74.58%보다 높았다. 밤방 장관은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대중교통이다.

자카르타는 1천만명이 거주하지만 낮시간에는 2천만명이 머문다. 따라서 철도를 기반으로 출퇴근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다”라고 말했다.

아니스 주지사와 밤방 장관 모두 9건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 민관협력 방식, 비국가 예산투자자금조달(PINA) 등 메가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법을 찾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국가개발기획청은 전국적으로 교통, 도로, 발전소, 전력, 통신,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쓰레기 관리, 도시 편의시설 등 전국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19건에 대해 KPBU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점진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브 까라와치 루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평가식당앞 상가)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흠치겠습니다!**

현대차, 올해 말 인도네시아 공장 착공 인구 2억7000만 거대시장...전기차 생산 목표로 SUV 먼저 출시

‘인구 2억7000만 거대시장을 잡아라’



현대자동차가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중국 대안시장)’로 낙점한 인도네시아에서 이르면 올해 말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기자동차와 SUV ‘두마리 토끼’ 잡는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 부지와 투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찰카랑(Cikarang) 공업단지 인근에 약 7조 루피아(약 5,500억 원)를 투자해 연산 25만대 규모의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차종은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가 유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75만대로 잡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2030년 연간 자동차생산 예상 규모 300만대에서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 필수 재료인 니켈 라테라이트 광석이 풍부하다는 점도 현대차의 진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앞서 최근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먼저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현대차, 印尼 거점으로 동남아 호주시장 진출 본격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명으로 중국(14억명), 인도(13억명), 미국(3억3,000

만명)에 이어 세계 4위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평균 5%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기도 하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호주 자동차 시장을 진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11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남방정책’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관세청, 우리 기업 인도네시아 수출 숨통 뚫었다

인도네시아의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가 지난해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한 숨통이 트인 것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

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비가공증명서는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됨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

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 (CTR) 100번째 모임가져

땅그랑 소재 모임으로 결손 다문화가정 돕기에 앞장서



▲CTR 유충하 회장

지난달 7일 결손 다문화가정 돕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귀감이 되고있는 땅그랑소재 찌뜨라 땅그랑코리아(회장:유충하) 100번째 모임이 띠가락사CC에서 열렸다. 이날 CTR 100회 모임에는 땅그랑반트 한인회 채만용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CTR 서재수 전임회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모여 100회 행사를 자축했으며 우리 동포 2세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찌뜨라땅그랑코리아는 2011년 1월 땅그랑 찌뜨라인근의 한인동포 50여명으로 창단, 발족했고 당시 발족의 취지는 우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2012년 전덕천 초대회장과 많은 회원들의 건의로 찌뜨라인근 다문화 결손가정을 지원하는 의견으로 시작하여 현재 2019년 까지 8년차 매월 결손가정에 생필품과 학비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찌뜨라땅그랑코리아에서 지원하는 가정은 17가구로 전 회원들의 봉사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꾸준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2대 김재열 회장을 이어 3대 서재수회장, 현재 4대 유충하 회장으로 이어지는 회장단은 인도네시아내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조용하고 심지깊은 봉사정신으로 CTR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번 100번째 모임을 자축하고 우리 다

문화 결손가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나누었다. 특히 매년 5월 가정의 달 행사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다문화 큰잔치를 열어 태극기 그리기, 한식 만들기 체험행사등 다채로운 행사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창범 대사를 비롯해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풍요로운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했었고 평창 동계 올림픽때 모국방문의 기회를 가져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국방문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다. 찌뜨라땅그랑코리아는 지역한인들의 화합과 우정으로 모인 민간 모임이지만 100회까지 그 행사를 가지면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문화 지원사업의 시작과 모범사례로 큰 획을 그어낸 자랑스런 큰 일들을 해 왔었다. 이번 100번째 행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인도네시아서도 미투 물결... 대학생 174명, 교내 성폭력 증언



▲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학가에서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 물결이 거세게 일어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 영자매체 자카르타포스트와 티르토 등 현지매체들은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28일 사이 전국 대학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캠페인을 벌인 결과 무려 1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나마바이캠퍼스' (#NamaBaikKampus · 캠퍼스의 명예) 캠페인에 동참해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들은 전국 79개 국립, 사립, 종교기반대학에 고루 분포해 있었다. 피해자 절반(87명)은 누구에게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털어냈다. 경찰 등에 신고한 피해자도 있지만, 적절히 해결된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수마트라의 한 국립대 여학생은 현장 학습을 벌이 삼아 교수가 자신을 차에 태운 뒤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면 너무 무서워서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비명을 질렀다면 살해당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중부 자바 주의 한 이슬람계 대학 의대생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 중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어서 휴게실에서 자는 교수를 깨웠더니 옆에 앉힌 뒤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버티고 있었는데 다행히 친구가 문을 열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학생과 부모는 교수를 상대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피해 학

생은 "그(가해자)는 의사이자, 교수이고, 그 병원의 전직 임원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나, 남학생도 7명이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고 제보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두 차례 이상 거듭 성폭력에 시달렸지만, 졸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가자마다대학(UGM)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학 대부분이 교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과학기술부(RISTEKDIKTI)의 학생담당 국장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교수 등에 의한 성폭력은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신고·제보되는 성폭력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까지 멀리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 속에도 데일리인도네시아 애독자와 기고자, 광고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응원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1999년 4월 22일 인도네시아 뉴스 전문 유료 뉴스레터로 창간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했을 당시 팩시밀리로 뉴스레터를 전달하기 시작해 이젠 이메일,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뉴미디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를 집중해 보도해왔으나, 앞으로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는 '아세안'의 뉴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분석과 통찰이 있는 자체 생산뉴스는 물론,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로부터 공급받는 콘텐츠와 아세안 전문 뉴스미디어인 '아세안익스프레스'와 제휴하여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진은 지난 2016년부터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관련 토론모임인 '인도네시아포럼'을, 2018년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관련 토론모임인 '아세안포럼'을 학계 및 지역전문가들과 공동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인도네시아를 보면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보인다." "읽는 즐거움과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좋은 신문사 데일리인도네시아." 로 거듭나고,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언론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화제의 인물로 ‘할담비(할아버지+손담비)’ 지병수(77)씨만한 이가 없다.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불러 일약 스타가 됐다. 의외의 선곡에, ‘막춤’ 아닌 ‘실버 아이돌 댄스’를 선보였다.

유튜브 조회 수가 200만을 넘겼다. 이후 신문 인터뷰를 통해 사업에 실패해 지금은 기초생활대상 수급자고, 자식도 없지만 여전히 즐겁게 산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제가 마음이 밝은 건 마음을 다 비워서 그렇다” 고도 했다. 피터팬 같은 순수함, 삶의 곤궁함을 넉넉히 감싸 안는 자세에 대중이 열광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도 열었다. 평소 좋아한다는 채연 등의 댄스가요 영상을 올렸다.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도 70대 김혜자(78)를 주인공으로 했다. 그것도 치매 노인이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치매 노인이 경험하는 세상을 그렸다. 치매 노인을 대상 아닌 주제로 그린 첫 드라마다. 극중 자신을 20대로 착각해 20대처럼 입고 말하는 ‘소녀 감성’ 김혜자에게는 “귀엽다”는 시청자 반응이 쏟아졌다.

대중문화 속 ‘노인’이 달라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 경제력 가진 ‘젊은 노인’이 등장하면서다.

노인을 더이상 부속물 아닌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TV프로그램과 영화들이 늘고 있다.

그 모습도 바뀌었다. 젊은 층에 군림하기보다 소통하고, 젊게 살지만 젊음에 집착하기보다 나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나이 드니까 좋다’ 외치기도 한다. 영화 ‘은교’ (2012)에서 젊은 여성의 육체를 탐하는 70대 노인(박해일)이 “내 늙음은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며 맹렬히 젊음을 질투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TV 예능에서는 60~70대인 강부자, 김수미, 이덕화 등이 맹활약 중이다. 의외로 축구광인 강부자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축구를 소재로 네티즌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판대 아닌 친구 이미지다.

80대 문맹 시골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시를 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네들’도 개봉했다. 시니어 유튜버의 대표주자 박막례

60~70대 시니어 패션모델들이 다수 등장했다. 긴 은발 머

사회를 맞은 일본 서적들이 잇따라 번역 출간되고 있다.

근사하게 나이들기 ‘그레이 크러시’가 뜬다 대중문화 속 ‘노인’이 달라지고 있다



▲ ‘전국노래자랑’에서 지병수 할아버지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불러 화제가 됐다.



▲ 귀여운 60대 커플룩으로 인스타그램 스타가 된 일본인 폰·본 부부

(73)씨는 지난해 과기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런웨이에도 은발을 날리는

리에 카리스마를 뽐내며 김철두(65)씨가 대표적이다.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모델학원에 등록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20대 뺨치는 패션센스로 유명한 60대 유튜버 ‘남포동 꽃할배’ 여용기씨, 귀여운 60대 커플룩으로 인스타그램 스타가 된 일본인 폰·본 부부도 유명하다. 폰·본 부부의 책 『아직 즐거운 날이 잔뜩 남았습니다』는 최근 국내에도 출간됐다.

출판계에서는 앞서 고령화

예전에는 ‘실버 코너’에 건강 정보나 죽음·노화를 성찰하는 책이 많았다면 요즘은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노인의 삶 자체에 주목하는 책이 많다.

그만큼 죽음을 예비하는 노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은 노년이란 뜻이다. 멋진 실버 라이프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그레이 크러시’란 표현까지 나왔다.

『나이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요』를 펴낸 와카야마 미사코(84)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다.

82세인 2017년 노인용 아이폰 게임 앱을 개발했다. 같은 해 일본 정부가 꾸린 ‘인생 100세 시대 구상회의’의 최고령 멤버도 됐다. 비혼여성인 그는 “노년이란 즐거운 것.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미있어진다.

일에서도 벗어나고 자녀 교육도 끝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안티 에이징보다 인조이 에이징하라”고 조언한다.

역시 일본의 70살 동갑내기 하야시 유키오·하야시 다카오 부부는 실버세대의 패션 알리미다.

나이 들수록 내면 못지않게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옷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이상 값비싼 옷을 사입기 힘들니 싸고 감각적으로 연출하는 법을 알려준다(『근사하게 나이들기』)

“나는 할머니가 좋다. 젊은 시절의 사회적 역할, 아내와 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의 진심으로 살아가는 시기다. 자유롭다.”

2017년 63세의 나이로 첫 소설 『나는 내대로 혼자서 간다』를 펴내고 이듬해 권위의 문학상 아쿠타가와상까지 거머쥔 소설가 와카타케 치사코(66)의 말이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나를 잃고 살았던 이들에게 ‘늙음’이 비로소 선사하는 자유, 이제야 진짜 나와 화해해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 그게 그레이 크러시의 핵심이란 얘기가.

중앙일보

“한국 블루문펀드, 인도네시아 시장 문 두드린다”

MOU를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준비 완료
“반드시 상호간 윈윈하는 성과 거둘 것”

펀딩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블루문펀드는 한국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투자시장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P2P전문업체 블루문펀드가 인도네시아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사흘간 현지를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신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블루문펀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마스포츠

(인도네시아 본부), 인도네시아 아디다스 총판매사와 업무협약을 예정하고 있다. 또 업무협약 후 효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위해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협력하여 사업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와 공급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인 만큼 해당 업무협약은 자국 매출에서 직접 취재 및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1차로 진행하는 조마스포츠와의 협약은 동산상품의 원활한 매수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펀딩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2차 인도네시아 아디다스 총판과의 협약을 통해 아디다스 브랜드의 동산을 한국 블루문펀드가 보유한 차주들에게 경쟁력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서 약속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도네시아 조달청에서 일정조율, 대외협력 등 많은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기획한 한국 블루문펀드 김진수 대표경영이사는 “MOU체결을 통해 향후 진행되는 양사간 사업에서

더 수익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펀딩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장조사 및 규모 파악을 통해 확보 가능한 시장을 더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조마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간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서로가 목표하는 목표달성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문펀드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하여 현지 펀딩플랫폼을 통해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수출업무 전폭지원” ... 창원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협의회 발족

현지 전담직원 맞춤형 지원과 방산사절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까지 포괄적 제공...전국 최초



▲ 지난 4월 18일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창원 경제부흥과 방위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창원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협의회 발족식’이 개최됐다. (사진=창원산업진흥원 제공)

전국 최초로 현지 전담직원 맞춤형 지원과 방산사절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창원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협의회가 발족했다.

창원산업진흥원(원장 백정환)은 지난 18일 창원 경제부흥과 방위산업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창원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수출협의회는 창원산업진흥원과 경남KOTRA지원단(단장 정봉기)이 공동 주관해 ‘창원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수출지원사업은 전 세계 30개국의 KOTRA 방산 지원센터에 창원 방산기업정보 배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을 비즈니스 거점으로 현지시장 동향 파악과 바이어 발굴, 현지 방산 국영기업 미팅 추진, ‘Buy Korea’ KOTRA 온라인 상품관을 해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오는 9월 인도네시아 방산사절단을 파견해 확보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B2B상담을 진행하며, 연계 사업으로 오는 11월 경 ‘핀포인트 초청 상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봉기 경남KOTRA지원단장은 “해외전담직원의 맞춤형 바이어 발굴과 사절단 파견,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까지, 지금까지 이처럼 방산기업에 연중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은 없었다”라며 “KOTRA에서도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창원시의 방산수출활성화에 대한 열의와 지원, 창원시 관내 방산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방산 수출의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창원시 방산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수출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고, 다양한 방산부품 국산화를 통해 그 기술과 경쟁력이 입증돼 있다”라

며, “이제는 수출성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기업지원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시 민선 7기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첨단방위산업은 중장기 활성화 계획으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선정해 2022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2019년 방위산업 수출지원, 방위중소기업 기술강화지원,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12억 3천만원을 우선 지원하며, 항공부품 개발과 공정개선 지원사업, 항공부품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5억 3천만원을 지원 중이다.

삼성 ‘갤럭시 A70’ 인니 사전예약...시장 적극 공략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A70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A70의 인도네시아 출시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하고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24일까지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를 앞세워 젊은 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갤럭시 A70은 6.7인치 풀 HD+ 해상도(1080x2400)의 슈퍼 AMOLED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장착됐고 후면 트리플 카메라와 전면 싱글 카메라가 탑재됐다.

AP(중앙처리장치, Application Processor)는 스냅드래곤 675, 메모리는 6GB와 8GB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장용량은 128GB로 마이크로

SD 슬롯을 장착해 512GB까지 확장할 수 있다.

배터리는 4,500mAh 대용량이 장착됐으며 급속충전을 지원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지문 스캐

너를 탑재해 중저가 라인업 이상의 스펙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갤럭시 A70은 인도네시아에서 579만 9,000루피아(약 47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태블릿 PC를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도 전했다.

중부발전 사내벤처, ‘미끄럼 방지 사다리’ 수출

인니 왁푸 · 찌레본 발전소와 계약...” 발전공기업 최초

한국중부발전의 사내벤처인 코미티아(주)가 발전공기업 최초로 수출에 성공했다.

중부발전은 코미티아가 인도네시아 왁푸 수력발전소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에 ‘사다리 미끄럼방지 장치’를 수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미티아가 개발한 사다리는 사다리 봉에 부분적으로 사각형의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해 발이 미끄러지기 쉬운 등근 원통형 사다리봉의 단점을 보완했다.

앞서 중부발전과 코미티아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왁푸 ·



▲ 중부발전 사내벤처 코미티아, 제품 설명회 당시 모습.[중부발전 제공]

팡가무스 · 시프르바 수력발전소와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현지 제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발전소 중 왁푸 수력발전소와 찌레본 화력발전소가 지난달 29일 수

출계약을 맺었고 현재 제품이 선적돼 운송 중이다.

중부발전과 코미티아는 체코, 헝가리 등 유럽지역 제품 설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사내벤처 기업이 기술개발과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창업자금 지원 등 각종 도움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금감원 “신남방국가 진출시 현지고객과 신뢰구축해야”

(단위: 개)

진출국가	은행	증권	자산 운용	손보	생보	여전	지주	합계
베트남	19	7	9	8	3	6	-	52
인도네시아	8	7	-	4	1	5	-	25
미얀마	12	-	-	1	-	8	-	21
인도	15	-	1	1	-	1	-	18
싱가포르	4	4	5	3	-	-	2	18
캄보디아	9	1	-	-	-	4	-	14
필리핀	7	-	-	-	-	-	-	7
라오스	-	-	-	-	-	4	-	4
태국	1	1	-	-	1	-	-	3
말레이시아	1	-	-	1	-	-	-	2
합계	76	20	15	18	5	28	2	164

▲ 2018년 12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른바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에 현지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업무를 소개하고, 현지 규제정

책 동향과 향후 협력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남방 국가 진출의 모범 사례와 현지 감독 당국의 인허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과 영업의 애로 사항도 논의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가

43개 국가에 436개의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신남방 국가로 분류되는 베트남(52개)·인도네시아(25개)·미얀마(21개)·인도·싱가포르(이상 18개)·캄보디아(14개)·필리핀(7개)·라오스(4개)·태국(3개)·말레이시아(2개) 등에 해외점포가 164개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해외점포가 2012년 53개에서 지난해 말 98개로 늘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신남방 국가는 20억명에 달하는 인구, 세계 7위권의 경제 규모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지역인 만큼 금융회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지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지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맥도날드, 맥스파이스 블랙 떡볶이 등 한국식 메뉴 출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최근 인도네시아에 떡볶이 치킨 앤 라이스, 스페셜 맥스파이스 블랙 떡볶이 등 한국식 메뉴를 출시했다. 현지 언론 꼬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떡볶이는 특 쏠는 맛으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매체는 또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맥도날드 인도네시아는 떡볶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의 국내 프랜차이즈(FC) 운영권을 가진 렉소 그룹 산하의 렉소 내셔널 푸드(PT Rekso Nasional Food) 측은 “재료의 매운 맛을 통해 국민의 다이어트 요구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렉소 내셔널 푸드는 올해 최대 20개의 맥도날드 점포를 추가 개설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5개 점포를 개설했다. 올해 1월 기준 총 점포 수는 198개에 달하고 있다.

미국 구글, 2020년 자카르타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



미국 구글이 2020년 상반기(1~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연례 행사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19(Google Cloud Next 2019)’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구글 클라우드 동남아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구글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서버를 갖춘 데이터센터의 설립은 인도네시아의 신생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으로는 배차 서비스 대기업 고젝(Gojek), 전자상거래(EC) 사이트 토코페디아(Tokopedia), 여행 사이트 트래블로카(Traveloka) 등의 신생 기업과 최대 택시 업체 블루버드(PT Blue Bird), 복합 기업 CT 코프 등의 대기업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세계 19개 지역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구글 측은 “내년 초 서울에도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고객들이 각종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 1 회 자카르타 청소년 DREAM 3:3 농구대회

-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8시
- 장소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비전관(4층 체육관)
- 중별 참가신청 : 중등부, 고등부
 - 남, 여, 혼성, 외국인 학생 모두 가능
 - 한 팀은 후보 선수 포함 4명~5명으로 구성
 - 외국인 학생은 전체 인원의 1/2 미만으로 한함
 - 5월 11일(금)까지 parkys1958@gmail.com으로 신청서 제출 (팀명, 주장 성명, 성명, 학교, 학년, 성별, 국적, 핸드폰 번호)
- 시상 :
 - 각 1등 200만루피아, 금메달
 - 각 2등 150만루피아, 은메달
 - 각 3등 100만루피아, 동메달
- 문의 사항 : 0816-102-299 / 0811-1129-038
- 상세 사항 : www.indoweb.org/dream_sports

※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 및 기념품 제공

● 주최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KOREAN UNION CHURCH IN JAKARTA
www.jakartayounhapch.org

● 후원 :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재인니 한인연합회의회 / BBJA 농구단

한국문화원, 반등에서 '2019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 예선전 개최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오는 4월21일(일) 오후 2시 한국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반등 크레이티브 허브 (Bandung Creative Hub)에서 '2019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의 약 6개 도시에서 총 243팀이 참가한 온라인 예선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15개 팀이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에서 수백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주인도네시아 천영평 문화원장, 서울신문사 문창호 차장 그리고 반등 예술대학 (ISBI) 해리 수비안포로 (Harry Subiantoro) 교수가 심사를 맡아주었다.

2019 K-Pop 커버댄스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의 우승팀은 아이돌 그룹 윗지 (ITZY)를 완벽히 커버한 '알



지(ALZY)' 팀이 1등을 차지하여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2019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는 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편, 아이즈원의 라 비아엔 로즈 (La Vie En Rose)에 맞춰 화려한 커버댄스를 펼친 반등출신의 '엑스피 걸즈 (XP-Girls)' 와 NCT123의 댄스를 선보인 '엑스피

보이즈 (XP-Boys)' 팀이 각각 2등과 3등을, 세븐틴과 레드벨벳을 커버한 '엑스펙토 (Expecto)' 팀과 '브라운 슈가 (Brown Sugar)' 팀이 각각 4등과 5등을 수상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난 1개월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던 <제100주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기념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수상작을 반등 크레이티브 허브 내 별도 전시공간에서 전시하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반등 지역사회에서도 그 뜻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한국민속전통놀이인 투호, 딱지치기, 왕제기차기 및 포토월 등을 운영하여 반등 내 한류 팬들에게 한국전통놀이를 몸소 체험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주 인도네시아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매년 발전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주제국 K-POP 한류 팬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확인한 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주관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문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개최

해외 생활에서 겪는 삶의 이야기를 문학에 접목시키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가 주최하는 2019년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문학축제가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Korean Culture Center)에서 박시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공광규 시인(문학박사)과 권대근 수필평론가(문학박사)도 초대문인으로 참석해 시상식을 더욱 빛내주었다. 주아세안대표부 김영채 대사의 축사,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의 격려사 영상에 이어 인니문협에 기여한 공이 큰 김준규 운영위원과 이태

복 (전)사무국장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서 수상자들의 장르별 시상식이 진행 올림을 주는 수상소감과 함께 진행되었다.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는 문학축제의 꽃인 초대문인의 문학특강이 있었다. 공광규 시인의(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 권대근 교수의(수필의 개념과 구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은 문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수상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북문학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알차고 멋지게 마무리 되었다. 서미숙 회장은 적도문학상의 취

지를 설명하면서 "해외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유실수가 열매를 키워내는 과정"에 비유하며 "삶이 곧 문학이 되는 아름다운 글을 써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 준비를 위하여 일차감치 문화원으로 달려온 김재구 사무국장은 이국땅에서 문학의 꽃을 피우는 인니문협의 지난 온 발자취 동영상에 감사하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말을 전했다.

공광규 시인의 심사평에서는 이번 적도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시(바티론 4-채송화)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을 교차시키면서 채송화에 대한 기억을 묘사하는 것이 일품이라고 전했다.

시(바티론 4-채송화)는 대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인과 어머니를 병치시키면서 모성애를 진술하는 시적 전개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부문 대상을 수

상한 이태건씨는 앞으로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무하는 시를 쓰고 싶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7년에 처음 제정된 '적도문학상'은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한국문인협회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제정된 문학상이다.

적도문학상 대상 당선자는 작가 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에 등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접수된 작품은 문협 인니지부의 예심과 한국문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본심을 거쳐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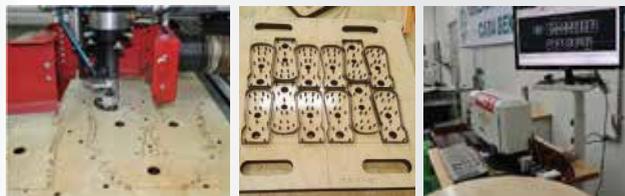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는 작가 등용문으로서 한껏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글: 한국문협 인니지부 / 이영미 작가)

톱슨 목 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한국,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대폭 개선

인도네시아 사증신청자 현황
 ○ 한-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확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지난 2010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44,286건의 비자를 발급했고, 지난 2018년에는 157,924건의 비자를 발급하여 7년간 대략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김창범)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방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문화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오픈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자카르타 시내 롯데에비뉴 5층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를 설립하고 5.2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KVAC 설립으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와 시간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체 전자(온라인) 비자 제도 도입
 ○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9년 7월부터 단체 전자(온라인) 비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즉 한국방문을 원하는 단체 관광객들(5인 이상이어야 함, 인센티브투어 및 대학교 이하 수학생단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포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서 대사관이 지정하는 44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신설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인은 기존 5년 유효

복수비자 이외에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10년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10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번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
 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③ 국영기업체 대표, 민간기업(자본금 50만달러 이상)의 대표
복수비자 신청자 재정서류 면제
 ○ 복수비자 신청자는 복수비자 신청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재정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 5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 서류
 ① 인도네시아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
 재직증명서만 제출

②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재직증명서만 제출
 ③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22개국)를 방문한 사람
 해당국가 방문사증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④ 연간 미화 8천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0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서류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자격증 사본만 제출
 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졸업증명서만 제출
 ③ 국영기업체 대표, 민간기

업(자본금 50만달러 이상)의 대표
 재직증명서만 제출
주요 기업 재직자 및 주요 대학 재학생 재정서류 면제
 ○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 재직자는 한국사증 신청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
 ○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주요 대학 학생들은 한국 사증 신청시 재학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
 ○ 금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주요기업 및 주요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며, 위와 같은 비자 간소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 교류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자유총연맹 평택시청년회 인도네시아서 봉사 활동 펼쳐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청년회(회장 김경한)는 지난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 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외 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단장 윤홍식)를 중심으로 평택시청년회 회원 7명을 포함해 6개시(평택, 화성, 고양, 시흥, 이천, 여주)의 회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PKBM HIM-MATA (빠까베엠 힘마따)학교의 외벽 보수와 책·결상수리 및 선풍기를 달고 이와 더불어 아리랑 등 한국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 자유총연맹 평택시청년회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사진=평택시 제공)

김경한 회장은 “너무나 낙후된 시설물에 마음이 아프다”며, “올해는 해외봉사 10주년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처음하는 봉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빠른 시일 내 다시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 - MOVE 프로그램 소개

-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 34세이하 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대선승리 유력’ 인니 조코위, 수도 이전 카드 다시 만지작

균형발전 위해 자바 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 이전 추진 결정 역대 정부도 추진했으나 매년 실패...일각선 회의론 고개

지난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주목된다. 29일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수도 이전 후속 계획’을 주제로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유습 깔라 부통령과 위란토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다르민 나수피온 경제조정부 장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밤방 브로조노고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리니 수마르노 국영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카르타의 행정 기능을 타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수도를 통째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서 “우리가 시작부터 잘 준비한다면 위대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1천만명의 동남아 최대 도시 자카르타가 “정부와 공공서비스의 중심이자 비즈니스 중심지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레이시아나 한국, 브라질, 카자흐스탄처럼 지나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간 폼빠스는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국가개발기획부가 ▲현상유지 ▲수도권 인근에 행정수도 건설 ▲자바 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 이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밤방 장관은 “첫 번째 방안은 자카르타에 여전히 기능이 집중된다. 둘째는 말레이시아의 뿌뜨라자야처럼 50~70km 거리에 행정수도를 건립하는 것이나 역시 자카르타 중심적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바 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면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가 기대되지만, 토지 확보와 비용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 섬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밤방 장관은 “회의에서 대통령은 자바 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세 번째 방안을 택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서 “다만 새 수도의 입지는 정하지 못했고, 앞으로 상당히 오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에선 과연 수도 이전이 실제로 추진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천문학적 비용 등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수카르노 전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국토 중앙에 해당하는 보르네오 섬 중부 깔리만판 주(州)에 빨랑가라야(Palangka raya)를 건설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후임자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새 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역시 수도 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다만,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cm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졌다. 시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8~9km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차량정체와 상수도 보급률이 60%에 그치는 등 미비한 인프라도 문제다. 인도네시아 빠자자란 대학의 공공정책 전문가 요기 수쁘라요기 수간디는 “자카르타는 더는 수도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자카르타는 경제에만 특화된 도시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광고주를 모십니다

금번 땅그랑반튼 한인회에서 땅그랑반튼에 소재하는 한인기업,업소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한인업체간 상생과 정보공유, 재난,재해 및 위급한 사태 발생시 빠른대응과 지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홍보, 그리고 땅그랑반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소속감 고취, 이슈와 정보에 관한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에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습니다. 금번 발행하는 디렉토리는 한인기업 모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므로 광고의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최적의 매체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내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전화 주시면 상담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사양

- 1, 약 400페이지 FULL COLOR
- 2, 발행부수 : 2,000부(초판발행)
- 3, 배포: 땅그랑, 반튼주내
한인기업 모두 무상배포,
인도네시아 한국 관공서, 기관외
- 4, 발행 예상일자 : 2019년 10월경

광고 문의 및 접수

전화 : 0858 9060 0962 / 0896 3033 4662
021 5579 6565
이메일 : silkroad.indonesia@yahoo.co.id
kakao talk : silkroad2011

QR코드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표지디자인>